

생체매트릭스 한국어꺼짐모드

—영어습득에서 필수적인 한국어꺼짐모드의 과학적 근거

| 박인수 홀로스 상임이사, 지금여기 번역위원 |

한국어가 지배하고 있는 두뇌 신경시스템 속으로 영어가 들어가 독립적인 언어시스템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큰 방해꾼인 한국어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한국어가 방심하는 사이 잠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명상은 바로 한국어의 방심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한국어꺼짐모드(이하 한꺼모드) 코스 안에는 다양한 명상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새로운 것들과 기존의 명상법들이 변형되어 섞여있다. 그리고 학습하는 사람마다, 시기마다 그 처방이 달라질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목록을 갖추고 있다(저자 주).



독립된 언어센터가 필요하다

1997년 7월 10일, 미국의 주요 과학연구소 두 곳에서 신경생리학자들이 언어 현상에 관해 연구한 결과가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Nature)”에 실렸다. (KARL H. S. KIM, NORMAN R. RELKIN, KYOUNG-MIN LEE & JOY HIRSCH *Department of Neurology,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Department of Neurology and Neuroscience,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New York)

논문의 제목은 “모국어와 제2언어에 연관된 구분되는 대뇌피질 영역들”이다. 이 연구논문 저자들의 결론은, 모국어를 먼저 습득한 후 외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경우,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화자는 두 개의 독립된 언어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래 그림은 네이처에 실린 두뇌 fMRI 사진들 중 하나이다. 제2언어인 프랑스어가 사용될 때 작동하는 대뇌피질의 부위가 모국어인 영어를 사용할 때의 작동부위와 따로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를 이미 습득한 후 영어를 배우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영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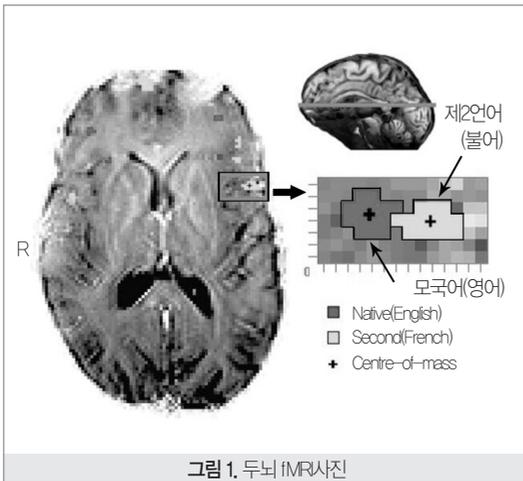


그림 1. 두뇌 fMRI사진

자유롭게 말하려면 한국어 센터와는 별도로 영어로만 작동하는 독립된 언어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어가 독립적인 언어구조를 갖추기 전에 한국어 구조의

힘에 의해 한국어의 부속물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어로 푹 떨어지게 번역이나 해석은 잘 할 수 있으나 말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공부를 많이 하면 영어실력이 는다기보다는 한국어 센터가 풍부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는 영어습득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영어공부를 할 때는 “한국어를 잠시 꺼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영어정보의 생존을 위해 한국어두뇌를 우회한다

이번 미내사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서 에너지 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관해 강연한 제임스 오슈만 박사의 “생체매트릭스 이론”을 빌려 설명하자면, 영어의 정보는 이미 한국어가 작동체계(Operating System)로서 지배하고 있는 두뇌에 들어올 때 한국어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들은 모두 걸러져버리고 그 결과 독립적인 언어시스템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영어공부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답답하고 힘들다. 영어로만 생각하는 영어사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어가 지배하고 있는 두뇌 신경시스템 속으로 영어가 들어가 독립적인 언어시스템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큰 방해꾼인 한국어를 회피하여 우회적으로 한국어가 방심하는 사이 잠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명상은 바로 한국어의 방심(放心)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한국어꺼짐모드(이하 한꺼모드) 코스 안에는 다양한 명상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새로운 것들과 기존의 명상방법들이 변형되어 섞여있다. 그리고 학습하는 사람마다, 시기마다 그 처방이 달라질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목록을 갖추고 있다.

제임스 오슈만 박사의 말을 다시 한 번 빌리자면, 영어가 귀만이 아니라 동시에 생체매트릭스를 통해 접촉되어야 한다. 오슈만의 생체매트릭스라는 개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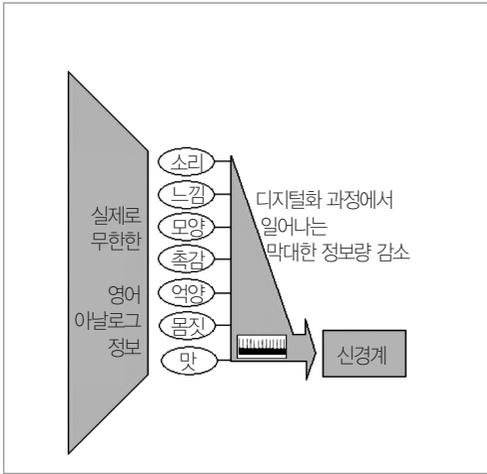


그림 2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 감소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유기체이며 몸은 그 유기체들 전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매트릭스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반면 두뇌의 신경회로로 들어가는 아날로그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바뀌게 되어 정보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오슈만은 운동선수나 무술의 달인들이 최고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바로 생체매트릭스가 작동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2)

영어학습도 마찬가지로 최고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어 지배

하의 두뇌를 우회하는 기법을 통해 좀 더 전체적인 몸에 작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어의 두뇌시스템이 먼저 영어정보를 가로챌 것이며 그러면 영어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고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이는 컴퓨터에서 이미 설치된 OS프로그램이 새로운 OS프로그램과 충돌하고 거부하는 현상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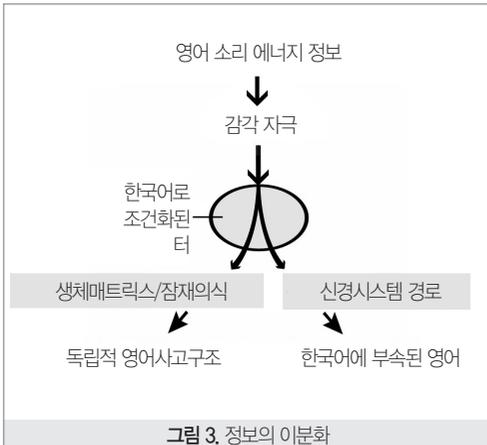


그림 3. 정보의 이분화

유된다. 두뇌는 한국어라는 작동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어정보는 한국어 두뇌에게는 언어가 아니라 부속자료일 뿐이다. (그림 3)

학습자에게 영어가 잘 들린다 싶을 때는 실제로 한국어가 자기도 모르게 꺼져 있을 때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 들어보려고 애를 쓰면 그런 일은 좀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남달리 외국어 습득에 능숙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국어를 잘 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다. 영어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연히 한국어가 꺼지는 경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꺼모드 영어학습법은 이미 그런 특별한 재능과 끈기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랜 훈련 끝에 도달한 한꺼모드를 처음부터 연습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것임에 틀림없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법이다

이 방법은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한국어를 끄고 그런 다음 빠른 시간 내에 영어시스템을 살려낼 수 있도록 테크니컬하게 영어와 접촉해나가는 기법들을 배우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해왔던 공부 방법은 비효율적이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 미국유학을 다녀왔다고 해도 만일 한국어 꺼짐모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영어는 아직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다. 이는 어휘 수는 부족할지라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미국 유치원생의 영어와 비교된다. 이 경우 그의 영어는 온전히 그의 것이다. 언어작동시스템으로 두뇌 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동일

한 원리와 방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해석하는 2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어를 있는 그대로의 영어로 곧바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다가 일정속도에 이르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날아오르기 전에는 빠르게 굴러가는 거대한 버스와 같다. 이륙속도에 못 미치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날아오르지는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두뇌에 영어센터가 따로 생성되지 않으면 열심히 달리는 대형버스와 같다. 이륙속도 이전에는 어디서 멈추든 같은 격이 되고 만다. 영어로 날아가는 체험은 일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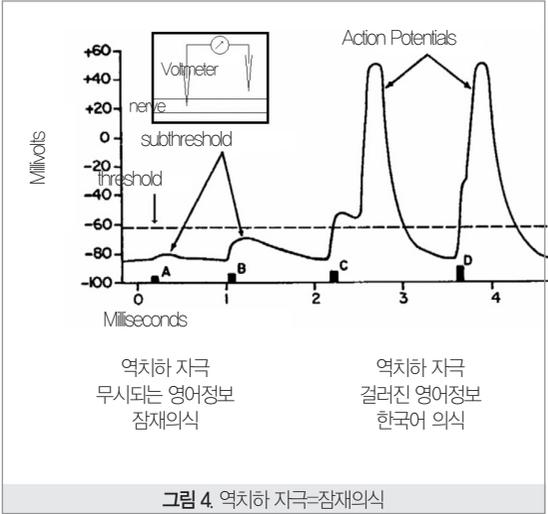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법은 처음부터 바로 영어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처음부터 떠오른다. 비록 높이는 높지 않을지라도 나는 것에 있어서는 구름 위를 나는 것과 동일하다. 미국 어린아이가 몇 단어만 가지고도 영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어가 끼여있을 때 이 비상은 가능하게 된다.

잠재의식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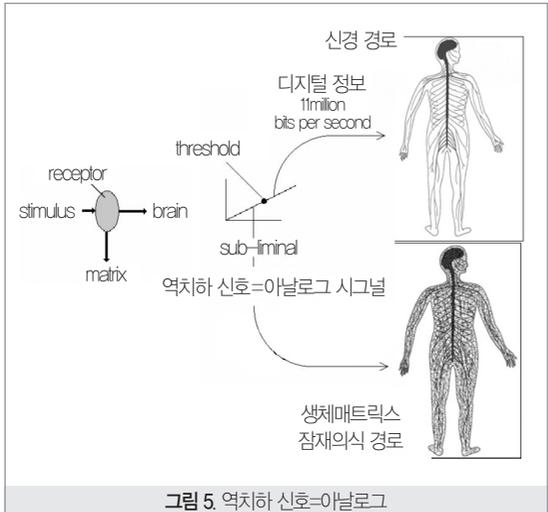
한국 영어교육의 약조건은 한국어로 모든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국어로 해석이 푹 떨어지게 잘 되면 그 영어문장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그것은 한국어가 느끼는 만족감일 뿐, 실제로 영어습득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듣거나 말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한국어를 들을 때는 다른 언어로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고 잘 알아듣는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법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모국어는 어떻게 알아듣는 것일까? 이 비밀을 터득한다면 우리는 영어습득에 날개를 다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은 말로 전달하기보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간단히 말한다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언어습득과정은 다분히 잠재의식적이다. 우리 중에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쓴 사람이 얼

마나 될까?

오슈만 박사는 필터에 의해 걸러져 두뇌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려지는



역치하(閾値下: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이하) 자극들은 잠재의식에서 처리된다고 말한다. 언어습득은 언어정보의 잠재의식적 처리 과정이다. 한꺼모드 코스에서는 이러한 잠재의식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한다. 한국어시스템이 걸러버리는 영어 정보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잠재의식에 남아 저장된다. 일상적인 의식에서는 이를 꺼내어 쓰지 못할 뿐이다. 일반학교 교육에서 놓쳐버리는 잠재의식의 정보처리를 언어습득과정에 포함시킬 때 죽어가는 영어를



살려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그림 5)

선천적 언어습득 장치를 재가동 한다

미국 MIT대학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언어습득 장치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 언어습득 장치는 의도적인 노력과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언어습득 장치가 모국어를 배울 때만 작동하고 외국어를 배울 때는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면 영어는 언어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정보들의 조합밖에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언어처럼 사용되지 못하고 반드시 한국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때 영어는 독립적인 언어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머리는 재빨리 번역을 해대느라 바쁘고 곧이어 과부하가 걸린다.

모국어를 습득할 때 사용했던 언어습득 장치를 다시 한 번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두뇌를 잠시 우회해야 한다. 마치 한국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명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명상기법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가 없는 영역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한국어가 아직 발을 딛지 않은 땅이다. 이 땅위에 우리는 영어건축물을 지어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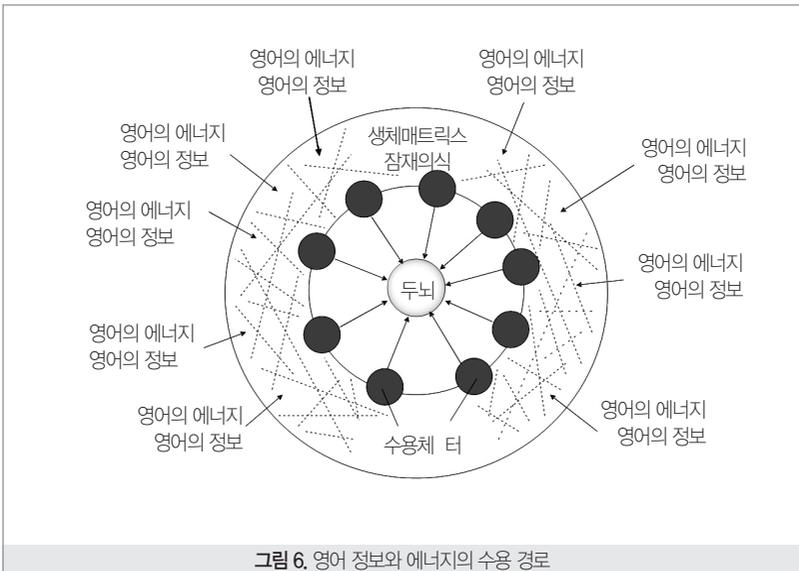
귀로만 들으면 영어가 잘 안 들린다. 그것은 이미 한국어가 귀의 신경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영어소리정보의 유입을 방해하는 필터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귀에는 “똑똑” 하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의 소리는 전혀 “똑똑”이 아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소리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이 이해가 간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 두뇌에는 한국어가 늘 작동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거의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어떤 면에서 이 한국어는 독재자와도 같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사에 간섭을 한다. 특히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도 감독관처럼 자리를 뜨지 않고 언제나 개입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회로를 발견하거나 빈자리를 발견하면 한국어는 그 힘을 미치지 못하며 영어는 그 새로운 땅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한다.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새로운 땅이 마련될 때 한국어에 부속되어 있던 영어정보들이 한꺼번에 이사 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언어학에서는 “언어전이현상”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한국어 밑에서 곁방살이를 하고 있던 영어들이 이사를 오는 것이다. 그럴 때 “언어폭발”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잠들면서 하는 영어명상기법’을 통해 이런 폭발을 경험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기법을 코스 중에 배우게 된다.

생체매트릭스, 빛몸 또는 형태발생필드

제임스 오슈만 박사는 생체매트릭스가 아날로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두뇌가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정보가 소실된다. 한국어 필터가 영어정보를 걸러내는 현상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정보를 바로 접하고 받아들이는 명상방법을 배우게 된다. 오수만의 생체매트릭스 개념 대신 우리는 “에너지 필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에너지 필드는 육체뿐만 아니라 미세신체(정묘체)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는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할 당시에, 즉 2세 이전에는 이 정묘체들을 많이 활용했을 거라는 가정을 한다. 그래서 이 학습법에서는 정묘체들을 활성화하는 기법들을 실제로 사용한다. 약 5년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온 “에너지 필드”기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경험되어왔다.

또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여기’ 잡지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형태발생필드 개념이다. 나는 언어도 발생, 성장, 소멸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처럼 볼 수 있고, 그래서 형태발생필드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이 도입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모국어를 습득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 한국어의 형태발생장에너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미인과 같은 영어화자와 함께 있는 경우 그 형태발생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녹음된 영어의 소리를 듣는 것과 실제 영어화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아마도 다분히 형태발생장과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녹음된 소리가 일부 담고 있을 그 필드를 증폭시키는 것이 효과 있으리라 생각한 끝에 에너지장 증폭기를 만들어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민감한 사람은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다. 영어의 소리가 몸 깊숙이 안겨드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으나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장치에 임시로 “영어 형태발생장 증폭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의식의 창조력을 활용한다

이런 물리적인 장치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창조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코스 중에 이런 의식의 창조적 활동을 많이 연습하게 된다. 우리의 의식은 창조자이다.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결론만 말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의식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의식을 변화시켜 잘 하는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 배움의 과정은 결국 ‘못한다’는 경험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의 전이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가상현실 창조기법을 사용한다.

두뇌와 신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두뇌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두뇌가 볼 때는 상상으로 오렌지를 먹는 것과 실제로 먹는 경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되는 체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화 속의 풍부한 해외경험을 실감나게 할 수 있다. 이는 고대로부터 명상가들이 해왔던 비밀스런 기법이다. 그들은 이를 활용해 정보를 얻거나 현실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토마티스 치료법을 응용한다

이 한겨모드 코스에서는 또한 지난 해 미내사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서 도린 데이비스가 소개한 토마티스 치료법을 응용한다. 토마티스 박사(Dr. Alfred Tomatis)는 언어장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사용하는 음성주파수대역이 서로 다른 것은 프랑스인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어 음성은 800~1,800Hz의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영어 음성은 2,000~12,000Hz 사이를 주로 사용하므로 주요 음성대역

이 현저하게 다르다. 더군다나 한국어의 주요 음성대역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프랑스어나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자음보다는 모음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보다는 프랑스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는 프랑스어보다도 더 모음이 중요시된다. 구강 내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모음들은 부딪히는 소리인 자음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 자음에 약한 한국어 사용자들은 영어의 자음들, 특히 두 세 개의 자음이 모음의 도움 없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겹자음을 알아듣는데 취약하다. 예를 들어, strike라는, 모음이 단 한 번 사용되는 1음절어를 한국인들은 “스트라이크”라는 5음절의 소리로 인식한다. 모음을 다섯 번 끼워 넣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미인들이 1초 걸리는 단어를 한국어식으로 발성하면 5초가 걸리는 셈이 된다. 한국어에 맞춰진 귀를 가지고 듣고 있는 한, 1초만에 지나가는 그 단어를 알아듣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장애는 한국어 자음소리의 종류가 영어보다 적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구분되는 p와 f, b와 v, r과 l 등이 한국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단어내의 장단 및 높낮이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신 한국어에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한국어 필터로 영어를 걸러 버리면 영어정보가 20~30%정도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국어에 적응된 귀를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장애를 치유하는데 사용하는 토마티스 기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일종의 장애를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이다. 한국어 귀를 벗어나 영어를 듣는 새로운 귀를 만드는 작업이 이 코스의 첫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가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 코스는 아기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일치하도록 짜여져 있다. 그것이 제2모국어를 얻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모국어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릴 것이다. 태아는 배속에서 아주 높은 주파수대역만을 듣는다고 한다. 이 코스에서는 “태아처럼 듣기”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 실제로 태아가 듣는 주파수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화시켜 놓은 음성자료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유아 모드에서 듣기’가 이어지고, 이어서 눈뜨기 과정, 입 열기, 웅얼이 단계, 말하기 과정으로 연결된다. 모국어습득과정을 명상기법들의 도움으로 3개월로 단축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한국어의 개입 없이 영어사고시스템만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태아상태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는 3년간의 과정까지를 압축해 놓은 것이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좋다. 3개월간의 시뮬레이션을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힘으로 영어정보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 오디오북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모든 경험들이 영어센터에 바로바로 빌딩블록처럼 쌓여나가게 된다. 이전에는 모두 한국어의 부속정보로만 활용되던 정보들이 이제 제 집을 찾아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는 좀 더 긴 문장들로 사고하게 되듯이 그와 같은 언어성장과정도 이어진다.

한국어가 방해하지 않는 과정이다

가장 간단히 이 학습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어의 개입이 전혀 없이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먼저 잠시 언급했던, ‘모국어인 한국어는 해석 없이 어떻게 이해할까’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마음속 언어의 층 아래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느낌의 층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잠재

의식의 층으로서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인데, 연습을 통해 의식적인 마음과 연결된다. 두 번째의 언어인 영어를 습득할 때는 이 잠재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 영어습득 이외에 의식이 통합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다른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 한꺼번에 과정에서는 한국어 개입을 피하기 위해 문법을 배우지 않는다. 문법 대신 영어문장의 에너지 흐름을 읽는 법을 연습한다. 영어 의식의 흐름은 일방향이다. 한국어가 펼쳐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양방향의 흐름을 지닌 것과 대조가 된다. 이 일방향의 흐름에 적응이 되면 오히려 영어식 사고가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영어의 어순 구조가 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영어소리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한다

또 하나의 부수적인 과정은 영어소리의 깊은 의미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낱말의 영어의 소리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다른 말로 하면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코스 중에 이를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성도 어렵듯이 느끼게 된다. 시작은 크게 다르지만 차츰 두 언어의 공유지대를 발견한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이 공유지대를 발견하면 영어와 한국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두 언어가 섞이는 것은 아니다. 공유지대 위에 두 언어 센터가 따로따로 서 있는 것이다. 전문적인 통역사들은 알게 모르게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공유지대를 활용하면 통역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알파벳 낱말의 의미가 합쳐지면 더 구체적인 의미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소리 S와 T가 만날 때를 생각해보자.

S는 글자모양이 보여주듯 뱀을 상징한다. 뱀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serpent, snake 모두 S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한자어에서 “사(巳)”라는 단어로 소리가 유사하다. 우리말에서는 S와 유사한 소리가 뱀의 동작, 기민하고 강력하면서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힘과 관련이 깊다. T소리는 화살모양으로 상징되는데, 고대에 T의 글자모양이 실제로 화살표모양()이었던 적이 있다. 화살은 멀리 날아가기도 하지만 과녁에 닿아 꽃히기도 한다. T의 느낌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달리다, 던지다, 당다”가 모두 t와 유사한 소리로 시작하는 데서 공통성을 느끼게 된다. T소리는 첫소리로 쓰일 때는 멀리 날아가는 힘을 상징할 때가 많지만 다른 소리의 다음에 결합하여 쓰일 때는 “닿음, 꽃힘”의 의미가 된다. S의 빠르고 힘찬 움직임이 화살에 닿아 꽃혀버려 멈추어 선 느낌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멈추어 서 있기는 하지만 그 축적된 힘은 아주 강하다. 여기에 강한 회전력을 나타내는 R소리가 추가되면(STR~) 강한 힘을 표현하게 된다. R의 소리는 현대영어에 와서 약해지기는 했지만 발성할 때 본래 아주 강한 힘이 표출된다. 첫소리에 쓰이면 폭력적이기도 하다. 다음에 예로든 st소리 관련 단어들에서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그림 7, 그림8)



그림 7. S의 상징-뱀



그림 8. T의 상징-화살

ST의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멈춤, 서있음을 나타낸다. 뱀(Snake) S 가 화살표 T에 꽂혀 S의 재빠른 움직임을 갑자기 멈추기 때문이다.(그림 9)



그림 9. 단어 stop의 느낌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

땅에 꽂혀 멈추어 선 막대기

staff	막대기	stimulate	찌러서 자극하다
stake	말뚝, 막대기	sting	찌르다
stalk	식물의 줄기	stitch	찌러서 꿰매다
stave	막대기	stir	막대기로 휘젓다
steak	어원이 '막대기에 꽂아 구운' 고기라는 뜻	stilt	지주, 기둥
stem	식물의 줄기, 대, 막대모양의 물건	stock	대, 지주, 주식
stick	막대기	stool	그루터기
stick	막대기로 찌르다 =stab 막대기에서 찌르는 것으로 발전한 의미 확장	strip	길고 가느다란 조각
		stub	그루터기
		stud	샷기둥
		stubble	그루터기
		stump	그루터기

멈춘 상태나 모양, 서있음

stable	멈추어 안정된 견고한	stale	멈추어 선 상태
stable	말을 가두어 멈추게 하는 곳, 마구간 > sty 돼지우리	static	정지하고 있는
stack	멈추어 쌓아놓은 더미	station	기차가 멈추어서는 곳
stage	서 있는 곳, 무대, 연단	stationary	정지한
stagger	서있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gger이 붙어 흔들림을 나타낸다.	statistics	어느 시점에 멈추어 합산한 결과, 통계학, 통계자료
stammer	말을 멈추고 더듬거리다 -mmer이 붙어 반복된 것을 나타냄.	statue	서있는 상
stagnant	멈추어 흐르지 는	stature	서있는 키
staid	멈추어 있으므로 안정된	status	서있는 지위
stain	오랫동안 멈추어있어 얼룩이 된 것	statute	세워놓은 규칙
stale	오랫동안 멈추어있어 진부한, 낡은	stay	멈추어 있음
stalemate	정지 상태, 난국	stead	대신 그 자리에 서있는 것 in stead of ~ > instead of ~
stall	마구간, 칸막이, 막아서 세워둔 것	steadfast	곳곳한 변함없이 서있는
stamp	발을 광 밟고 서있다.	steady	확고한 가만히 움직이지 는
stance	서있는 자세	steel	견고한 강철
stand	서있다	step	발로 밟는 것
standard	세워놓은 기준	sterile	산출이 멈춘, 열매를 못 맺는
staple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못	stern	마음의 움직임이 멈춘, 엄격한, 답답한
star	하늘에 박혀있는 별	stickle	막아서다, 반대하다
starchy	뻣뻣한	sticky	끈적이는
stare	가만히 움직이지 고 바라보다	stiff	뻣뻣한 움직이지 아 굳은
stark	뻣뻣한	stifle	숨을 멈추게 하다, 억제하다
starve	먹는 것을 멈추어 굶어죽다	stigma	더러움, 오랫동안 멈추어서 얼룩진 것
		still	정지하고 있는
		stint	사용을 멈추게 하여 줄이다, 절약하다
		stock	가만히 쌓아둔 것, 저장품
		stodgy	가만히 쌓여있어 답답한

stone	멈추어 서있어 단단히 굳은 것 돌	strip	가혹하게 빼앗다
stony	움직이지 않는	strive	힘쓰다
stop	멈추다	strong	힘이 강한
stoop	오래 멈추어있어 허리가 굽다	structure	멈춰있는 상태 구조
store	가만히 쌓아두다	struggle	힘쓰다 -uggle이 붙어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stork	한 다리로 가만히 서있는 새, 황새	stubborn	완강하게 저항하는
stout	가만히 서있어 단호한, 튼튼한	studio	서있는 장소
straight	멈추어서있어 일관성이 있고 정연하다. R이 붙으면 힘이 강해진다. R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강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str-은 멈춘 상태에서 강하게 뻗는 힘이 생긴다.	study	가만히 앉아 연구하다 > student 가만히 앉아 연구하는 학생
strain	멈춘 상태에서 팽팽하게 하다	stuff	가만히 넣어둔 것, 재료
strand	팽팽하게 끈 밧줄 > strap 끈 > string 끈, streak 줄, stripe 줄, straw 짚	stuffy	가만히 막혀있어 답답한
strangle	너무 강하게 멈추게 하여 목 졸라 죽이다.	stumble	달리다가 멈추게 되는 동작, 넘어지다, 부딪치다
strong	멈춘 상태에서 강한 힘이 나는	stun	행동을 멈추게 하다, 기절시키다
stream	뻗어나가는 흐름 (steam 뻗어 나오는 증기)	stupefy	마비시키다
street	뻗어있는 길	stupid	두뇌행동이 마비되어 멍청한
strenuous	뻗어 나오는 힘이 있는	sturdy	볼굴의 마음의 동요가 없는
stress	힘주기	style	멈추어 선 형태, 모양
stretch	뻗다	stymie	꼭짜 못하는 난처한 상황
strict	엄한, 가혹한	styptic	피를 멈추게 하는
strike	힘이 강하여 강하게 때리다 > stroke 때리기		
stringent	가혹한		

-st 로 끝나는 경우에도 멈추어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persist	어떤 일을 하면서 끝까지 계속 서있다	움직임이므로, 자기 집에 와서 멈추어 머무르는 손님
insist	어떤 일을 가지고 버티고 서있다	invest 안으로 투입하여 머무르게 하는 동작, 말기다
resist	저항하며 서있다	list L은 길게 늘어짐을 의미하므로, 늘어 서있는 것, 일람표
assist	옆에 서있으면서 돕다	last L은 길게 늘어짐 여기서는 a가 사용되어 느낌의 폭이 넓은, 위의 단어의 경우에는 i가 사용되어 좁은 느낌이 든다. 좁고 긴 일람표, last의 경우에는 폭넓게 늘어져서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a는 항상 넓고 큰 것을 의미한다.
protest	반대하며 버티고 서있다	
against	반대하는 힘을 가지고 서있는 상태	
just	J는 칼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칼같이 서있음을 나타냄	
exist	존재 상태로 서있다	
most	최상급은 모두 가장 끝에 서있는 상태를 의미함	
dust	가만히 서있어서 만들어지는 먼지, 흙	
post	P는 pin같이 뾰족한 끝을 의미하므로, 땅에 꽂혀있는 막대기, 말뚝	
forest	F는 여러 가지로 갈라짐을 의미하므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서있는 숲	
guest	G는 자기 쪽을 향한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박인수 | 서울대에서 독일어를 전공, 러시아 국제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침. 대학시절에 죽음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빛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음공부에 입문함. 약 20년간 TM-스디코스, 단전호흡, 참선, 아보타마스터코스, 다양한 종교경험 등을 거치면서 명상과 학습의 통합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끝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어꺼짐모드 영어학습법"을 창안함. 그 후 "내면의 빛"의 체험이 학습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여 "빛몸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함. 저서 <잉글리쉬 마인드 트레이닝>, 역서 <치유-아름다운 모험>